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1호 【루게 제24774호】 주제 103(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계급주의자들의 온갖 반공화국책 등을 단호히 거부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 42돐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배두산절세위인들의 최대의 애국 유산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이다. 지금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현장을 마련하고 우리 조국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 불멸의 사회주의의 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한대인수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5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고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선포한것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서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 김일성-김정일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김일성-김정일헌법을 백성의 기치로 들고이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자본주의가 흥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 높이 떨쳐가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이고 철석의 명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장하는 가장 우월하고 불멸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을 초적으로 하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데 우리의 사회주의의 근본특징이 있고 그 우월성과 위력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구한 기간 존엄한 혁명실천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위대한 사회주의라는것을 심장깊이 일깨워왔다. 사회주의는 지니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철리를 뼈에 새겼듯이 우리 인민은 그처럼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다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해를 수 있었으며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모든 날과 달들을 영웅적인 사회주의수호전으로 수놓아 올수 있었다. 우리 식 사회주의와 같이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꿋꿋이 옹호하며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는 세상에 없다.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음모와 낚시,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대조선(인민결의)이라는 특대형모략극을 조작했다. 《인권》타령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한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멸성과 위력에 겁을 먹은자들의 최후 발악이다. 《인권문제》를 구실로 침략의 길을 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짓밟으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다져주고있다. 그 어떤 천지 풍파가 닥쳐오고 세상이 열변을 뒤집힌다고 하여도 우리 식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념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인민의 학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각급 주권기관직책을 통하여 자기의 대표들을 직접 선출하며 그들을 통하여 자

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고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되고있으며 누구나 로동의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 등 인간의 모든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성을 반영하여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작성되고 인민대중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는것이 우리 조국이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하느님처럼 만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함축되어있다.

자본주의사회가 돈이고 권세있는 자들에게는 인민의 천당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우리 인민에게는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불멸의 보루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의 기치높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까지 빛내이며 세계자주위업을 힘차게 선도해나갈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전체 인민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친 화북한 하나의 대가정이다.

사랑과 정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덕이며 화북한 대한 가장 진실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생동한 표현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어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고있으며 《우리》라는 친근한 부르속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있다. 부모없는 아이들의 천부모가 되어주고 혁명지침들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며 청년들이 영예군인들의 한쌍의 길동무가 되는 감동깊은 화북한이 펼쳐지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모든 사람들이 한심술처럼 화북화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은

자본주의가 흥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는것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더욱 공고해지고있다. 세상사람들이 경탄하는 인민사랑의 전설하여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작성되고 인민대중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는것이 우리 조국이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하느님처럼 만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함축되어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나 먼 앞날을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설계하고 착실하고있으며 누구나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메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고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당의 선군혁명도리에 천백배로 다져지고있는 강력한 자위적군사력도 우리의 영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불멸의 보루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의 기치높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까지 빛내이며 세계자주위업을 힘차게 선도해나갈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의 력사는 수렁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성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수렁은 인류를 하느님처럼 내세우고 인민은 수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만드는 우리 사회의 현연의 뉴데이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없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회주의정신적부자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후대사관, 미래사관이 활짝 꽃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내일승리를 뚜렷이 반증해 주셨다.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에는 끝없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 부럽잖아!》 노래는 대대손손 행복을 지려갈 우리의 사회주의요람에 대한 찬가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심장깊이 새기고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와 번영을 위한 근본초석이다. 우리는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주체 100년대를 세기적번영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대로 물려주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배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유혹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판별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강성국가건설에 한몫 다 바치는 수렁을 위한것이다. 진당, 진군, 진일이 산림복구전투에 펼쳐나갈때 대한 호소에도,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친 자업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까지 빛내이며 세계자주위업을 힘차게 선도해나갈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의 력사는 수렁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성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수렁은 인류를 하느님처럼 내세우고 인민은 수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만드는 우리 사회의 현연의 뉴데이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없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회주의정신적부자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후대사관, 미래사관이 활짝 꽃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내일승리를 뚜렷이 반증해 주셨다.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에는 끝없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 부럽잖아!》 노래는 대대손손 행복을 지려갈 우리의 사회주의요람에 대한 찬가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심장깊이 새기고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와 번영을 위한 근본초석이다. 우리는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주체 100년대를 세기적번영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대로 물려주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배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유혹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판별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강성국가건설에 한몫 다 바치는 수렁을 위한것이다. 진당, 진군, 진일이 산림복구전투에 펼쳐나갈때 대한 호소에도,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친 자업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까지 빛내이며 세계자주위업을 힘차게 선도해나갈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의 력사는 수렁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성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수렁은 인류를 하느님처럼 내세우고 인민은 수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만드는 우리 사회의 현연의 뉴데이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없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회주의정신적부자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후대사관, 미래사관이 활짝 꽃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내일승리를 뚜렷이 반증해 주셨다.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에는 끝없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 부럽잖아!》 노래는 대대손손 행복을 지려갈 우리의 사회주의요람에 대한 찬가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심장깊이 새기고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와 번영을 위한 근본초석이다. 우리는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주체 100년대를 세기적번영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대대로 물려주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배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유혹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판별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강성국가건설에 한몫 다 바치는 수렁을 위한것이다. 진당, 진군, 진일이 산림복구전투에 펼쳐나갈때 대한 호소에도,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친 자업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까지 빛내이며 세계자주위업을 힘차게 선도해나갈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의 력사는 수렁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성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수렁은 인류를 하느님처럼 내세우고 인민은 수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만드는 우리 사회의 현연의 뉴데이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없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회주의정신적부자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후대사관, 미래사관이 활짝 꽃피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내일승리를 뚜렷이 반증해 주셨다.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에는 끝없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 부럽잖아!》 노래는 대대손손 행복을 지려갈 우리의 사회주의요람에 대한 찬가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심장깊이 새기고 강성국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알재리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새해 주체104(2015)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이 23일 중국주
조음하여 아르메이지즈 부대콜라가 알재리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였다. 제 우리 나라 대사관에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는데 가장 행복한 이북민중

남 녀 인민들이 열렬히 동경

남 녀 겨레는 근로인민이 배두산절세위인들을 영원한 수렁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정권의 주인으로서 온갖 정치적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가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제도들 열렬히 동경하고있다. 한 법학교수는 제자들에게 이북의 헌법에 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이민주권의 사상이 그대로 집대성되어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새겨 돌리보면 이북에 세워진 정권처럼 근로민중모두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정권은 찾아볼수 없다. 근로민중 누구나가 평등하며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뿐 아니라 민중중심의 복지사회를 펼쳐가는 정권, 이것이 이북에게 거연히 솟은 진정한 민중의 정권이다.

서울대학교의 한 법학교수는 집에 찾아온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국민들의 참된 삶과 행복한 생활이 법적으로 담보되는 사회에서 살고싶은것이 나의 희망이다. 동서고금의 법전들을 다 연구해보았지만 이북의 사회주의헌법처럼 인간적 자주적권리와 행복을 마음속깊이 담보해주는 헌법은 없다. 북의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이민주권의 사상

으로 일관되어있다. 서울의 한 주민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년호와 태양정의 제정으로 세계정치사에 없는 신정치를 창조하시였으며 김일성주석님을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모시고 그분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을 법문화한 김일성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남조선의 《현한뉴스》와 《KBS》, 《MBC》, 《SBS》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헌법과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뜨거운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에 대하여 언론들은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도에 류경주강원도와 육류야동병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이 새롭게 일떠서고 원수님께서 친히 여러차례 돌아보시면서 온갖 배려와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소식을 전하며 감동을 표시하였다. 인민의 한 주민은 김일성대원수님을 이북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김정은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만들어오신 이북민들의 앞날을 희망하고 찬탄하였다.

남조선의 한 애국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은원수님은 김일성주석님, 김정일장군님과 똑같은 위대한 태양이시다. 우리 민족과 인류가 맞이한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이북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영원무궁할 것이다. 본사기자

함주추상1호발전소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 전달

함주추상1호발전소가 훌륭히 건설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판별하기 위해 펼쳐나선 함주군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금강강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일떠섬으로써 조국의 경제발전에도 더욱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준공식이 26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태중수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함주군의 일군들, 청년들, 청년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함주추상1호발전소 건설에서 로명적위훈을 세운 청년들, 근로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 새겨 함주추상1호발전소 건설에서 로명적위훈을 세운 청년들, 근로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뜨거운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에 대하여 언론들은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도에 류경주강원도와 육류야동병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이 새롭게 일떠서고 원수님께서 친히 여러차례 돌아보시면서 온갖 배려와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소식을 전하며 감동을 표시하였다.

함주추상1호발전소 준공식은 함주군 배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함주군 인민들의 불멸의 정신력에 의하여 일떠섬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5(2006)년 11월 14일 환공

된 금강강홍청년발전소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추상1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때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발전소건설을 격려해주시고 근로자들에게 같이 귀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결심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위에 건설의 대원영기를 펼쳐나가는 당중앙은 함주군의 청년들, 근로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이 함주추상1호발전소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로해를 그리고나서 사랑을 안겨 주셨으며 일을 더 잘해나가고도록 무력려해주시였다.

추상1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피뎌는 심정에 받아안은 함주군의 청년들, 근로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당의 사랑과 정을 지니고 함주추상1호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운 함주군의 청년들, 근로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함주추상1호발전소 준공식은 함주군 배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함주군 인민들의 불멸의 정신력에 의하여 일떠섬 자력갱생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5(2006)년 11월 14일 환공

파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훨씬 단축할수 있게 하였다

중에서는 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면서 18km에 달하는 자연흐름식판 계수로와 읍지주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를 풀기 위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3000여정보의 논에 관개용수를 보장하고 읍지주 주민들에게 수질이 좋은 물을 원만히 공급해주시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능숙한 전투지휘로 공사를 다그치고 화신식정지사업을 단계별로 대충을 발전소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로해를 그리고나서 사랑을 안겨 주셨으며 일을 더 잘해나가고도록 무력려해주시였다.

추상1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피뎌는 심정에 받아안은 함주군의 청년들, 근로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당의 사랑과 정을 지니고 함주추상1호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운 함주군의 청년들, 근로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5(2006)년 11월 14일 환공

회 부위원장의 준공식이 이어 함주군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함주군중추발전소운영실 건설사업소 지배인 장봉민, 함주추상1호발전소건설사업소장 정지부장 배기철이 토론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력사적인 창조현실의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려 군의 경제발전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발전소건설의 나날에 발휘한 정신, 그 기백으로 추상2호, 3호, 4호, 5호발전소건설을 적극 다그치며 다음해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대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일러와 마음을 열며 꾸미며 온 나라를 수렴화, 원일화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 군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당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큰 의의를 가지는 함주추상1호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인민의 헌법

사회주의헌법정도를 맞이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절제위인들에게로 끌려나갈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실천으로 주체의 법칙,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법칙을 마련하시어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이 찬연히 빛을 뿌리었다. 절제위인들을 영연히 받들어오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철칙의 의지를 담아 사회주의헌법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청중의 노래가 끝없이 끊어지지 않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영한 영광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지이십니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성스러운 그 부름에는 정력적인 영도도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헌법을 제정실시하시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법칙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력사와 인민의 열렬한 청송이 그대로 이어졌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헌정은 인민을 위한 헌법을 마련하여 인민의 자주적언론과 권리를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신 크나큰 업적으로 빛나고있다.

지침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이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법제전통을 창조하시고 해방된 조국 땅에서 그를 구현하시어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공화국복반부에서 이룩된 국가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화국헌법을 작성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전인민적 토의를 거쳐 주체 37(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 1차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위대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에 초,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결박하게 요구하고있던 당시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기후제도와 그 권능만을 서술한 다른 나라의 헌법과는 달리

구성과 내용에서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전개된 헌법, 인민을 위한 주체적헌법을 마련하실것을 결심하시었다.

새 헌법초안의 조문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 낮과 밤을 이어 붙이신 심혈은 그 얼마였던가. 끝없는 사색을 이으시며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법전을 마련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인민은 잊지 않는다.

주체 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었다.

오늘도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었지만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동지를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고 하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

고결한 그 뜻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까지 없었던 헌법 머리글조안을 친히 작성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수정보충되는 사회주의헌법의 머리글에서 우리 공화국의 헌법을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와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에 떠받들려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경이적인 화폭이 펼쳐져 만사람을 감동케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와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에 떠받들려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경이적인 화폭이 펼쳐져 만사람을 감동케 하시었다.

날의 화폭이 선히 어려온다. 사회주의헌법의 발표는 인민이 모 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었다.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 인민이 비탄에 몰부림치던 그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형님을 공화국의 영연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법화하고 그에 맞게 헌법의 해당 부분을 수정보충하도록 하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시던 말씀도 우리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었지만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동지를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고 하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

고결한 그 뜻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까지 없었던 헌법 머리글조안을 친히 작성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수정보충되는 사회주의헌법의 머리글에서 우리 공화국의 헌법을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와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에 떠받들려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경이적인 화폭이 펼쳐져 만사람을 감동케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와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에 떠받들려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경이적인 화폭이 펼쳐져 만사람을 감동케 하시었다.

공화국의 헌법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어주시는 력사적의의를 이룩하시었다.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연한 헌법을 새겨주시고 강성국가건설대진군을 강력적으로 영도하시는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5차회의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회의준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문제 대하여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수십년간 혁명적업적을 영도하여오신 진행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사회주의헌법의 머리글에 반영하여 구체하고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대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헌법을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법화한 헌장으로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던 어버이수령님이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연히 높이 모시기 위하여 국방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국방위원회 위원장 아래에 다른 직제를 두며 그 직제를 헌법에 어떻게 반영하여 넣겠는가 하는것을 알아보도록 하시었다. 그이의 고결한 총정과 도덕의리의 세계는 일군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어느날에도 국방위원회 위원장아래에 두는 직제에 대한 안을 보고받으시고 그 직제가 어떻게 불리우든 자신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일하면 그만이라고 참으로 겸허한 말씀을 하신 우리 원수님 이시다.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혁명가들은 판적은 어떻게 혁명만 하면 된다고,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생생하게 살아 계시는 지금이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전사로서 수령

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것이라고 절절히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그대로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법화하여 영연히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총정에 떠받들려,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헌법의 머리글도 수정보충되었다.

끝없는 진전길, 현지지도의 길을 헤치시는 속에서도 헌법초안을 놓고 받들려,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헌법의 머리글도 수정보충되었다.

주체 101(2012)년 4월 13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 5차회의에서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며 만만민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영연한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대 대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으로 채택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시었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채택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연한 주석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연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친체민체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마르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게 되었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정령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 수 있는 인민의 법전이다. 태양은 영연하다. 그 위업도 영연하다.

절제 위인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영연한 무기로 틀어쥐고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인선
사진 본사기자 정순애



12월, 눈내리는 강산을 보아도, 하늘을 바라보아도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사후지는 그리움이 대하마냥 파도치고 태양처럼 환하신 그 영상이 어려오는 12월이다. 하기에 잊지 못할 12월의 날을 돌이켜보는 인민의 마음은 그리도 뜨거울것이다.

12월은 그리움만 남지 놓치지 않았다. 장군님그리움으로 불라는 심장을 승리의 메아리를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의 창조한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찬하무적의 백두산혁명장군과 불패의 군민대원들이 이끄는 당의 위업을 광신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두해전 12월 어느날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나의 문건을 보고계시었다. 인공지구 위성발사준비를 끝낸 장군님과 대원사관들에 대한 청영이었다.

한창 또 한창... 주위세계를 잊으셨듯 그이께서는 문건의 매 문구, 매 문장 하나하나를 보고 또 보시었다. 위성발사.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여기에 깃들어있던가. 우리 나라의 우주정복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시작되고 그이의 뜻을 받들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신 어버이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더욱 즐거워가 이어졌다. 그 나날 남달랐으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력사적사변을 준비하여 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위성발사의 성공을 위하여

눈덮인 길을 헤쳐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시어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위성발사에서 반드시 성공하여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장군님께 제일 큰 선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

잠시후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을 그려보듯 승연한 감정에

세계가 뒤흔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 성공! 《이번 발사는 김일성령도자의 유훈을 받들고 관철하시려는 김정은각하의 확고한 의지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온 세계가 우리의 위성발사소식으로 뒤흔들고있는 가운데 위대한 선군혁명위업의 승고한 혁명적도덕의리와 영도업적이 빛날채와 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총정과 도덕의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데 그이의 확신과 신심에 넘치신 유성이 장내에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축복을 받으며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 위성발사와 더불어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주정복의 명마루에 오른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선군혁명위업의 승고한 혁명적도덕의리와 영도업적이 빛날채와 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총정과 도덕의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데 그이의 확신과 신심에 넘치신 유성이 장내에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축복을 받으며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 위성발사와 더불어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주정복의 명마루에 오른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선군혁명위업의 승고한 혁명적도덕의리와 영도업적이 빛날채와 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총정과 도덕의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데 그이의 확신과 신심에 넘치신 유성이 장내에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축복을 받으며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 위성발사와 더불어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주정복의 명마루에 오른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선군혁명위업의 승고한 혁명적도덕의리와 영도업적이 빛날채와 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총정과 도덕의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어버이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속에는 하찮은 이야기들이 어이다. 그중에서도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펼쳐진 바다가 되고 담긴 뜻을 헤아리며 하늘의 높이에 이를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도 바로 그중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고 물도 들우어도 꽃을 피우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주체 77(1988)년 7월 어느날 제 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의 성과적보상을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서서 평양시내에 설치한 직관장식도안들을 보아주시었다.

축전준비를 맡은 일군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되었던 축전들보다 더 우아하고 화려하게 수고를 장식하려고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창작원성된 도안들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훌륭하였다. 헌첩헌첩의 도안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2월의 메아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에도 신장의 열과 정을 강그리 바치시었다.

두번째 위성을 쏘올리던 그날 위성관제 종합지휘소에 몸소 나오시어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광명성-3》호를 쏘올려 우주정복과 리용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우리가 실용성을 쏘올리게 되면 자신께서 직접 발사 단추를 누르겠다고 결정하시어 이야기하시던 어버이장군님.

바로 그 숭고한 뜻을 꽃피우시어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었다.

위성발사를 며칠 앞둔 날에도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건위에 활달한 필체로 써나 가시었다.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발사할것! 김정은 2012.12.12. 최후승리로 향한 선군조선의 시간표에 또 하나의 기적적인 시각이 기록된 력사의 순간이었다.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 성공한 소식에 집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12월의 메아리를 불러온 절제위인의 고귀한 글발을 다시금 심장에 새겨안았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어 어버이장군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그후 그들을 위하여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도 하시었다.

연회에 참가한 사람들도 아닌 온 나라 군대와 인민모두가 뜨거움으로 가슴을 적시었다.

통렬한 곡성이 하늘을 진감하던 피눈물의 언덕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정으로, 거창한 창조와 자랑한 승리를 력사의 한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크나큰 격정이 끓어치는 가운데

데 그이의 확신과 신심에 넘치신 유성이 장내에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축복을 받으며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 위성발사와 더불어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주정복의 명마루에 오른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선군혁명위업의 승고한 혁명적도덕의리와 영도업적이 빛날채와 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총정과 도덕의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데 그이의 확신과 신심에 넘치신 유성이 장내에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축복을 받으며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 위성발사와 더불어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주정복의 명마루에 오른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선군혁명위업의 승고한 혁명적도덕의리와 영도업적이 빛날채와 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총정과 도덕의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데 그이의 확신과 신심에 넘치신 유성이 장내에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축복을 받으며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 위성발사와 더불어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주정복의 명마루에 오른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선군혁명위업의 승고한 혁명적도덕의리와 영도업적이 빛날채와 인민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총정과 도덕의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도덕의리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위대한 령도

혁명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 내세우시고 혁명적도덕의리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어 오셨다. 수십성상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도덕의리 우리 조국을 혁명선배들의 피와 땀이 어린 붉은기가 새겨진 이어 높이 휘날리는 불매의 사회주의보루로, 천만군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의 정과 의리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빛내어오신 성스러운 력사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적도덕의리의 위대한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더욱더 뜻깊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고결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탁월한 령도자이다. 만민이 경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도덕의리의 숭고성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전면적으로 계승하여온 지난 3년간의 나날에 날김없이 파시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연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철칙으로 숭고고수하시며 혁명적도덕의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

다. 우리 혁명의 각이한 년대에 빛나는 유산을 아로새긴 혁명선배들과 애국렬사들, 영웅적사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고 그들의 투쟁정신이 줄기차게 흐르도록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을 원수님의 도덕의리의 세계는 동서고구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없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생의 사명이고 총적투쟁목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과 혁명을 영도하시면서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어 바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연한 수령으로 친체민체 높이 받들어오시며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이 수령명생의 대기념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전 국민에게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질수록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태양의 영상이 깊게 새겨져 되었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연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21세기를 향도해나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열들이 지녔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 배우도록 혁명적도덕의리를 영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생의 사명이고 총적투쟁목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과 혁명을 영도하시면서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어 바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연한 수령으로 친체민체 높이 받들어오시며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이 수령명생의 대기념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전 국민에게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질수록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태양의 영상이 깊게 새겨져 되었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연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21세기를 향도해나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열들이 지녔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 배우도록 혁명적도덕의리를 영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생의 사명이고 총적투쟁목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과 혁명을 영도하시면서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어 바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연한 수령으로 친체민체 높이 받들어오시며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이 수령명생의 대기념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전 국민에게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질수록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태양의 영상이 깊게 새겨져 되었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연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21세기를 향도해나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열들이 지녔던 투쟁정신과 기풍을 따라 배우도록 혁명적도덕의리를 영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생의 사명이고 총적투쟁목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과 혁명을 영도하시면서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어 바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연한 수령으로 친체민체 높이 받들어오시며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이 수령명생의 대기념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전 국민에게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질수록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태양의 영상이 깊게 새겨져 되었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연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21세기를 향도해나가

의 세계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보다 공고한 도덕의리적단결로 승화시키고 온 나라가 화폭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게 내보내신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사상과 신념의 승리인 동시에 혁명적도덕의 승리라는데는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날김없이 확고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도덕관을 체철화한 우리 인민의 품모는 대단히 훌륭하다. 그들속에는 많은 지식, 사치있는 자식을 갖지 않는 것,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정신으로 인생길을 잘못 들었던 청년들을 때땀이 손잡아 이끌어온 당원들도 있고 조국을 위해 피흘려 싸운 영예군인의 한생의 길동무가 되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자고도 하는 고상한 미풍의 소유자들도 있다. 집단주의 의생활화하고 사회주의를 신념화, 도덕화한 이런 선열들이 많기에 우리 인민모두가 사회주의대중의 정치사상적질과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남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숭고한 인간애,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은 천품으로 지니신 사의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혁명적사상을 함양해온 안아 믿어주고 내세워주시며 그들속에서 발전되는 미풍을 전사회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

리 강 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툐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이 25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현상수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수동, 국가과학원 수석연구사 연구사 량성철, 경성수력양병공장 로동자 김영희가 연설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군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나가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인민군대를 영리한 위대한 수령님의 장군님의 군대,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사의 지지점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독창적인 군건설리론과 방침들을 제시

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체위가 뜨겁게 어리둥신 인민군대들에 대한 헌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는것을 인민군대정치사업의 총적목표로 내세우시고 우리 혁명무력이 최정에백두산혁명강군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어나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였다.

탁월한 전략술적방향을 밝혀주시고 전군에 백두의 혼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군대인들을 위한 단련공격방식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하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화같은 전우애, 동지애로 우리 혁명무력을 일심단결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며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인민군대가 선도자가 되어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전력적으로 이끌어 주시고계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진대행진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청년들 앞으로!》가 26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세계의 선군령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백두산대국의 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청년전위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실화와 노래를 곡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그 품이 제일 좋아》로 시작한 공연무대에는 녀성2중창 《운명도 미레도 말건분》, 대회사 《그날이 보인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출품들이 울렸다.

축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시며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500만 청년전위들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며 인민의 품과 리상을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선군대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

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쳐갈 청년전위들의 드높은 기개를 과시한 남성소창과 방랑 《수령이시여 명명만 내리시라》, 금관4중주와 무용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장고와 북채창 《혁명을 위하여》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청춘의 열정과 광만, 전투적기백이 맥박치는 공연은 시와 소할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조선청년행진곡》으로 끝났다.

부강조국건설에 바쳐가는 애국충정

각지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이 올해에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피마주씨를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보내주었다.

기쁜 피마주씨 한할한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수상을 순결한 량심과 열정적인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녀성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뜨겁게 어려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소배를 띄워주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강성국가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려는 애국충정을 안고 각지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은 올해에 들어와 민방을 적극 찾아내어 피마주를 심고 가꾸기 위한 투쟁에 한걸음이 떨쳐나섰다.

평양시녀맹위원회에서는 지난 시 좋은일하기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녀맹원들속에 피마주씨 생산이 가져오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새겨주며 그들의 정신풍을 발동하는 조직적사업을 짜고 들었다. 이와 함께 종자확보를 선형시키면서 제철에 심기 위한

사업을 주도성있게 벌렸다. 종자를 박은 다음에는 모든 녀맹원들이 피마주의 생육상태에 따르는 비배관리를 실속있게 하도록 요구를 부단히 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피마주씨생산계획을 172.5%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남도녀맹위원회에서도 피마주씨생산에서 녀맹원들의 애국적열의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최선적사업을 시작부터 공세적으로 벌렸다. 봄내려 피마주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제기되는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지행하여 봄이 새운 피마주씨생산목표를 제일 먼저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특히 라선시녀맹위원회 일군들과 녀맹원들은 당정책관철에서 보여준 인민군대원들의 투쟁기풍을 따르며 처음부터 목표를 높이 세우고 피마주씨생산에 대한 열정을 떨쳐냈다. 이들은 자연 지리적으로 불리한 속에서도 종자심기로부터 비배관리와 피마주씨채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마다에서 녀맹조직들사이, 녀맹원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방범모습에 조직하여 계획의 3배가 훨씬 넘는 피마주씨를 생산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황해북도와 남포시, 함경북도와 강원도, 함경남도의 녀맹조직들에서도 녀맹원들의 애국적열의를 단단히 하고 달려들어 종자를 마련하고 적지를 찾아내는데서 오는 녀맹원들의 애국적열의와 적극성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였으며 피마주씨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하여 피마주씨생산계획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강성국가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많은 피마주씨를 마련하는데서 원선시와 구성시, 금야군과 려포구역, 라마구역과 북창지구관할합격업소 녀맹원들이 그리고 덕천시녀맹위원장 김영순, 봉성구역녀맹위원장 최옥숙, 대동구역녀맹위원장 장미화동무들과 려포구역 녀맹위원장 최영희위원장 등 15명, 단군시 군막동 녀맹원 김경애동무를 비롯한 많은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이 남다른 모범을 보였다.

올해에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근로단체에 대한 당적지도에 큰 힘을 넣어 강성국가건설에서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근로단체조직들과 동맹원들이 오늘의 총돌격전에 한걸음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총돌격으로, 선봉의 강자, 도덕의 강자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 초소로 팔리는 뜨거운 마음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군정치를 높이 발휘하고 인민군대원들을 친열육처럼 사랑하고 물질관념으로 성의껏 원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동군 대리로동자 31 인민반 박미옥가정은 원군으로 자랑 많은 가정이다.

오늘은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를 초소의 병사들에게 보내주는 날이다. 나날이 두터워지는 원군기공장을 펼쳐보는 남편인 최복삼장무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있다.

10여년전 어느날이었다. 시내에 나갔던 박미옥동무는 건설장에서 땀흘리고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공사기일을 알맞기 위해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땀을 흘리고있는 그들의 일복에서 박미옥동무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들을 위한 길에 내 모든것을 바치리라.)

이런 결심을 안고 시작한 원군 길이었다. 온 가정이 떨쳐나 원호물자를 해결하느라 분주히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힘든 줄 몰랐다.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받아안고 기뻐할 군인들의 모습을 그려 보노라면 더없이 기뻐했다.

지난 시기 창건기리건설과 위성과학자주체지구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대한 원군사업에도 앞장서온 이들도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전술술에도 가정에서는 성의껏 마련한 많은 원호물자를 초소의 병사들에게 또다시 보내주었다.

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공사기일을 알맞기 위해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땀을 흘리고있는 그들의 일복에서 박미옥동무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들을 위한 길에 내 모든것을 바치리라.)

이런 결심을 안고 시작한 원군 길이었다. 온 가정이 떨쳐나 원호물자를 해결하느라 분주히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힘든 줄 몰랐다. 지성어린 원호물자를 받아안고 기뻐할 군인들의 모습을 그려 보노라면 더없이 기뻐했다.

지난 시기 창건기리건설과 위성과학자주체지구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게 대한 원군사업에도 앞장서온 이들도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전술술에도 가정에서는 성의껏 마련한 많은 원호물자를 초소의 병사들에게 또다시 보내주었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8일 11시부터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불법입국한 남조선주민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

오산 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겨울철체육종목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8일 11시부터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불법입국한 남조선주민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

오산 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겨울철체육종목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8일 11시부터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불법입국한 남조선주민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

오산 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겨울철체육종목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군대를 백두산최정에강군으로 건설하고 강성병영의 새시대를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동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록 온갖 인명과 사명을 배풀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서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조진속도창조의 불길기 세차게 타오르게 함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두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펼칠 날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하겠기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3툐에 즈음한 청년혁명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이 26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경축모임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탄광기공장 로동자 전영호, 대성남제철물동농장 농장원 김금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고충혁, 사동구역청년동맹위원장 위원장 배성남이 연설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일찍이 총대와 같은 인연을 맺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군건설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배내이기 위한 사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군에 백두산혁명열풍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퍼주시고 인민군대가 조국과 혁명의 믿음직한 수호자, 인민의 창조자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전력적으로 이끌어

주요계선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실록에는 백두산혁명청년들의 청년중시, 청년사상의 정취를 빛나게 계승하시어 청년동맹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전위대로 내세워주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조국을 빛내고 사대를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도록 결심할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춘의 열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이속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에 간직하고 언제나 당이 가라키는 한길로 억새처럼 나아가며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는 선봉투사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사상교양의 뒷바람을 일으켜 모든 녀맹원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인의 녀맹조직들에서 선관선전에 대한 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린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녀맹단체가 조직되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함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변영기를 안아온 뜻깊은 올해는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비상히 강화되고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준 해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풍을 총괄발시키기 위한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수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고적전투장마다에서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조진속도창조열풍, 비약의 폭풍이 불어닥쳐 있었다.

백두산청년발전건설건설장과 북부철길건설보수공사장, 위성과과학자주체지구건설장 5월 1일경기장정보수전투장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전투장마다에서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청년들의 기개와 본래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올해에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가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8일 11시부터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불법입국한 남조선주민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

오산 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겨울철체육종목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8일 11시부터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불법입국한 남조선주민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

오산 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겨울철체육종목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군대를 백두산최정에강군으로 건설하고 강성병영의 새시대를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동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록 온갖 인명과 사명을 배풀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서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조진속도창조의 불길기 세차게 타오르게 함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두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펼칠 날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하겠기라고 강조하였다.

주요계선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실록에는 백두산혁명청년들의 청년중시, 청년사상의 정취를 빛나게 계승하시어 청년동맹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전위대로 내세워주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조국을 빛내고 사대를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도록 결심할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춘의 열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이속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에 간직하고 언제나 당이 가라키는 한길로 억새처럼 나아가며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는 선봉투사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사상교양의 뒷바람을 일으켜 모든 녀맹원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인의 녀맹조직들에서 선관선전에 대한 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린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녀맹단체가 조직되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함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변영기를 안아온 뜻깊은 올해는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비상히 강화되고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준 해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풍을 총괄발시키기 위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수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고적전투장마다에서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조진속도창조열풍, 비약의 폭풍이 불어닥쳐 있었다.

백두산청년발전건설건설장과 북부철길건설보수공사장, 위성과과학자주체지구건설장 5월 1일경기장정보수전투장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전투장마다에서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청년들의 기개와 본래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올해에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가

힘겨운 막강부견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매월 말까지 계획을 이김없이 앞당겨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어느 단위가 말했는가. 막장은 나의 전호, 착업하는 나의 총대라고.

그랬다. 조국이 달아준 명성이 제복마다에 빛나는 탄부들은 석탄전선을 지켜선 명사였다. 막장은 경제강국건설의 최전방 전호와 같았다.

물러서도 되는 전호란 없다!

힘겨운 막강부견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매월 말까지 계획을 이김없이 앞당겨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어느 단위가 말했는가. 막장은 나의 전호, 착업하는 나의 총대라고.

그랬다. 조국이 달아준 명성이 제복마다에 빛나는 탄부들은 석탄전선을 지켜선 명사였다. 막장은 경제강국건설의 최전방 전호와 같았다.

물러서도 되는 전호란 없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8일 11시부터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불법입국한 남조선주민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

오산 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겨울철체육종목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8일 11시부터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불법입국한 남조선주민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

오산 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겨울철체육종목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군대를 백두산최정에강군으로 건설하고 강성병영의 새시대를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동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록 온갖 인명과 사명을 배풀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서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조진속도창조의 불길기 세차게 타오르게 함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두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펼칠 날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하겠기라고 강조하였다.

주요계선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실록에는 백두산혁명청년들의 청년중시, 청년사상의 정취를 빛나게 계승하시어 청년동맹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전위대로 내세워주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조국을 빛내고 사대를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도록 결심할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춘의 열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이속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에 간직하고 언제나 당이 가라키는 한길로 억새처럼 나아가며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는 선봉투사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사상교양의 뒷바람을 일으켜 모든 녀맹원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인의 녀맹조직들에서 선관선전에 대한 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린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녀맹단체가 조직되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함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변영기를 안아온 뜻깊은 올해는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비상히 강화되고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준 해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풍을 총괄발시키기 위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수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고적전투장마다에서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조진속도창조열풍, 비약의 폭풍이 불어닥쳐 있었다.

백두산청년발전건설건설장과 북부철길건설보수공사장, 위성과과학자주체지구건설장 5월 1일경기장정보수전투장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전투장마다에서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청년들의 기개와 본래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올해에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가

힘겨운 막강부견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매월 말까지 계획을 이김없이 앞당겨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어느 단위가 말했는가. 막장은 나의 전호, 착업하는 나의 총대라고.

그랬다. 조국이 달아준 명성이 제복마다에 빛나는 탄부들은 석탄전선을 지켜선 명사였다. 막장은 경제강국건설의 최전방 전호와 같았다.

물러서도 되는 전호란 없다!

힘겨운 막강부견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매월 말까지 계획을 이김없이 앞당겨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어느 단위가 말했는가. 막장은 나의 전호, 착업하는 나의 총대라고.

그랬다. 조국이 달아준 명성이 제복마다에 빛나는 탄부들은 석탄전선을 지켜선 명사였다. 막장은 경제강국건설의 최전방 전호와 같았다.

물러서도 되는 전호란 없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8일 11시부터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불법입국한 남조선주민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

오산 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겨울철체육종목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8일 11시부터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불법입국한 남조선주민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인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우리측 지역에 불법입국

오산 덕상 체육경기대회 폐막

겨울철체육종목들의 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기여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군대를 백두산최정에강군으로 건설하고 강성병영의 새시대를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동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록 온갖 인명과 사명을 배풀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서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모시고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조진속도창조의 불길기 세차게 타오르게 함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두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펼칠 날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 하겠기라고 강조하였다.

주요계선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실록에는 백두산혁명청년들의 청년중시, 청년사상의 정취를 빛나게 계승하시어 청년동맹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전위대로 내세워주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조국을 빛내고 사대를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도록 결심할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청춘의 열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이속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에 간직하고 언제나 당이 가라키는 한길로 억새처럼 나아가며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는 선봉투사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사상교양의 뒷바람을 일으켜 모든 녀맹원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남도인의 녀맹조직들에서 선관선전에 대한 지원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린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녀맹단체가 조직되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조선녀성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함으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변영기를 안아온 뜻깊은 올해는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비상히 강화되고 근로단체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여준 해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풍을 총괄발시키기 위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수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고적전투장마다에서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조진속도창조열풍, 비약의 폭풍이 불어닥쳐 있었다.

백두산청년발전건설건설장과 북부철길건설보수공사장, 위성과과학자주체지구건설장 5월 1일경기장정보수전투장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전투장마다에서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청년들의 기개와 본래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올해에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가

불패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영원한 삶의 요람

승리의 신심도 힘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 비약의 불바람을 세계 일여나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은 이 세상 천만복을 누려가는 크나큰 활취속에 사회주의헌법을 맞이하고있다.

은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지고 오랜 세월 갈망하던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가장 인민적이며 주체적인 헌법을 마련해주시는 위인들에 대한 찬양은 고마움과 영원한 삶의 요람-사회주의 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새겨져서 울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근로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되고 사회의 모든 재부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쓰인다.』

김일성-김정일철명법! 조종히 불러보아도 누구나의 가슴속에 크나큰 격정이 솟아오른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고결한 찬양과 순결한 도덕의리심, 숭고한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마련된 선군조선의 영원한 정치현상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절제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헌법을 가지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지니고 있는 우리 인민이 자랑스럽고있다.

주제 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정식 채택되었다.

...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족을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리겠다.

...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 자자구구 새길수록 이인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있는 선군인민들의 헌신의 자욱이 어려온다.

우리 인민은 옛날부터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것을 평생 소원으로 여겨왔고 하면서서 어머니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수발을 풀어주시며

많은 길을 걸으셨던가.

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그대로 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에 의하여 어머니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원로님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절세의 위인들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헌법이 있어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굳건히 담보되어올수 있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의 날에도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고난속에서 지켜주고 더욱 커가는 사랑과 은정이어서 우리 인민은 더욱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신 포한반의 위대한 선군정쟁을 높이 모시고 끝없는 영광과 행복속에서 언제나 삶을 걷고있는 선군인민들의 편지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그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에 떠받들려 내 조국방 방방공공에서 불날의 혼황하고 같이 우리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 퍼지지 않았던가.

창공높이 위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기발하고 더불어 우리 인민이 누리는 복된 삶은 얼마나 긍지로운것인가. 뜻있는 사회주의헌법을 맞으며 우리는 열매진 풍채를 띤 대동강변에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사범대학이 발족을 하였다. 마치 대동강에 떠있는 꽃배를 받들게 하는 고승야바는 바라볼수록 멋있었다.

우리가 찾는 집은 2관 9층 1호에 살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강좌장 김행선동무의 가정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금방시에 잊어 버리지 마시라.』

김주인인 김행선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살림집을 돌아보았다.

살림집에는 방의 모양과 크기에 알맞은 가구들이 일자로 갖추어져있었다. 말그대로 최고주택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부리가 되어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목숨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참대우해주고, 혁명가로 내세워주시고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

지난 3년간은 날을 따라 더 해만 가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혜택속에 우리 인민이 바라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진 날이었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의 휘황한 설제도를 펼쳐주시고 인민들의 커가는 행복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그처럼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앞을 다투어 일떠서고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고 사회주의만복을 노래하는 인민의 격정 끝없이 울려 퍼질수 있었다.

누구나 배를 걱정,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는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이 법적으로 지켜지고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올해에만도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과 인민의 기쁨을 전하는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꽃피었는가.

진정 우리가 누리는 삶의 권리와 의무, 이 땅에서 진행되는 모든 창조와 건설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누려가는 사회주의만복이 나날이 더욱 활짝 꽃피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빛내여갈 불타는 결에 넘쳐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국가관심사, 인민의 권익

나라에서 보금자리를 일떠시켰다. 그 수를 헤아릴수 없는 살림집들의 주인은 배의 없이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다.

새로운 발전소나 농장, 공장 일떠설 때면 의례히 살림집이 건설되어 주인들을 기다렸다. 나라에서 마련해준 보금자리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름이 적혀진 살림집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했다.

돈을 내지 않고 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공민의 권리,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권리이다. 무상으로 치료받을 때 대한 공민의 법적인 권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과 인민보건의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성원인 인디아의 한 의학박사는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무상치료제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볼수 없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진단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진료소를 비롯해서 각종 치료예방기지와 의료 인공을 사서 의료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와 의사당당구 역제가 실시되어 국가가 근

심할수 없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진단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진료소를 비롯해서 각종 치료예방기지와 의료 인공을 사서 의료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와 의사당당구 역제가 실시되어 국가가 근

심할수 없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진단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진료소를 비롯해서 각종 치료예방기지와 의료 인공을 사서 의료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와 의사당당구 역제가 실시되어 국가가 근

심할수 없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진단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진료소를 비롯해서 각종 치료예방기지와 의료 인공을 사서 의료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와 의사당당구 역제가 실시되어 국가가 근

심할수 없는 가장 우월한 보건제도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진단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진료소를 비롯해서 각종 치료예방기지와 의료 인공을 사서 의료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와 의사당당구 역제가 실시되어 국가가 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정권을 단순한 권력기관으로가 아니라 근로인민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경제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체, 인민의 권익의 보호자로서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으로 건설하였을이다.』

올해 3월에 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회의로 선거 받았다.

이 소식은 우리 김정숙평양직공장 종업원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놀래웠다.

누구보다 놀랐것은 나자신이였다. 웃음을 찢는 직포공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나라의 정사를 도의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이란 말인가.

처음에는 감격과 흥분으로 막을것과 다음에는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내가 어떻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할것인가 하는 근심에 휩싸였다.

일꾼들이 나에게 동무와 같은 로동자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았으므로써 우리 혁명정권이 근로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담은 정칙을 세우고 광범한 대중의 신리에 맞게 활동을 벌려나가게 된다고 말해주었다.

남에 우리 공장에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로동형용들과 함께 저를 비롯한 세 세대 로동형용자들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쁨과 사랑을 찍어주시고 하였다.

홀로하게 일떠선 창건기지의 새 집을 받았을 때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의 행복과 대일 새 시대의 앞날을 따듯이 축복해주셨었다.

이제 불과 32살인 나는 조선청년의 최고영예인 김일성청년 영예상을 수여 받았으며

나는 로동자대의원이자

선군시대 공로자로, 로동형용으로 떠받들려오고있다.

아버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어머니마져 일찍 잃어 한가정의 식솔들을 떠맡았던 내가 한과 권세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나라에서 천을 찢다면 과연 목숨이나 제대로 연명하겠는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로동계급의 세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근로하는 인민의 나라를 행성을 닮아, 피땀을 다 바쳐 노력이 받들여갈 맹세나 나의 심장이 불타다.

김정숙평양직공장 직포 종합직장 1직포직장 직포공군 강순

우리의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우리 나라의 정말 근로인민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고있는 것은 참대우를 받은것을 잘 알수 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회의 첫발도 로동자로 떼고 지금도 변함없이 직포공인 나에게 영광과 행복은 해마다 달마다 쉬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남다른 정념으로 피땀을 흘린것을 잊지

우리의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우리 나라의 정말 근로인민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고있는 것은 참대우를 받은것을 잘 알수 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회의 첫발도 로동자로 떼고 지금도 변함없이 직포공인 나에게 영광과 행복은 해마다 달마다 쉬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남다른 정념으로 피땀을 흘린것을 잊지

우리의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우리 나라의 정말 근로인민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고있는 것은 참대우를 받은것을 잘 알수 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회의 첫발도 로동자로 떼고 지금도 변함없이 직포공인 나에게 영광과 행복은 해마다 달마다 쉬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남다른 정념으로 피땀을 흘린것을 잊지

만복의 배를 타고 우리는 긍지로운 삶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강좌장 김행선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사랑과 온정이 살림방들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고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의 로부에서 일한 강좌장의 주부인 장태영동무는 강좌에서 최후의 이별을 겪은 후 한달간 휴가를 쉬고있다. 그녀는 그 동안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교단에 섰는데로 부터 오늘까지 40년간 그는 후대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면서 현실에서 절박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 전문제도를 수없이 꾸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날 그가 받은 증서는 50여개나 되고 집필한 교과서와 참고서는 20여 권이나 된다.

이러한 공로로 하여 그는 위대한 장군님과 평등하게 어울리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들의 행

은정 어린 감사를 거듭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다.

김행선동무의 5남매가족에는 대학졸업생이 20명이나 되고 교수, 박사 2명을 비롯하여 학위학적소유자가 10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중에는 공훈 과학자도 공훈의사도 있다.

김일성청년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한 단대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사위와 딸과 함께 사는 김행선동무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었다.

유유히 흘러가는 대동강이 한 눈에 바라보이는 창가에 서 김행선동무는 말하였다.

『은 세상을 받아내고 만복의 배를 탄것입니다. 제 어깨와 고마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그는 조종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 내 앞길 비치는 그 해빛 없다면 내 울림 두들길은 배와 같이 장군님 안겨준 찬란한 미래로 신념의 노를 저어가네

... 우리가 얼마나 따사로운 품에 안겨서 가는 길에 생각해볼까 하는 노래였다. 우리는 이들의 가정에 더 큰 만복이 넘치기를 바라며 그들을 떠났다.

본사기자 현경철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이해의 정 초부터 동족 대결광기를 불러미 민족을 반역해온 피뢰들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도 험잡고 날조로 꾸며낸 《북인민》문제를 제기해 판공국의 판을 더 크게 벌리는것으로 년말을 어지럽히고있다.

그러나 피뢰페당이 나 깨진 저들의 창조지구명으로 남의 집 대문을 훔쳤고있을 때 남조선의 근로대중은 이 동지들의 추위속에서 자신들의 고달픈 한해를 어떻게 마감하고 있는가.

매칠전 남조선의 한 방송은 편일 추위가 가슴을 부리는 이 동지들에게서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20층이 있는 광고판우에서 추위에 떨며 통성투쟁을 벌리고있는 두명의 비정규직해고로동자들에게 대한 기사를 실었다. 판간 하나없이 좀더 좋은 광고판우에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그런 곳에서 두사람은 거센 바람과 눈을 에이는 추위에 떨고있고 벌써 한달째나 복직을 쫓겨며 통성을 이어가고있다. 광고

판에는 《비정규직 109명 대량해고 책임지라》는 글발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에 대해 전하면서 방송은 《추위는 갈수록 혹독해지는 데 따뜻한 가족들이 그러은 두 로동자는 언제 광고판우에서 내려올지 알수 없는 기약없는 통성을 이어가고있다.》라고 보도했다.

새해 대한 희망은 고사하고 당장 대원의 생존을 위해 가족의 품이 아닌 의지할 란간조차 추위에 떨며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피뢰페에는 두 해고로동자의 불행한 모습, 바로 이것이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의 실상이다. 눈만 짜게지민 입술이 부르드도록 《북인민》을 썩여대는 피뢰페당이 저들의 반인민적행위 이 어떤 이 가슴아픈 현실을 무엇으로 감출수 있겠는가.

두명의 비정규직해고로동자들이 찬바람 몰아치는 광고판우에서 항의통성투쟁을 이어

판에는 《비정규직 109명 대량해고 책임지라》는 글발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에 대해 전하면서 방송은 《추위는 갈수록 혹독해지는 데 따뜻한 가족들이 그러은 두 로동자는 언제 광고판우에서 내려올지 알수 없는 기약없는 통성을 이어가고있다.》라고 보도했다.

새해 대한 희망은 고사하고 당장 대원의 생존을 위해 가족의 품이 아닌 의지할 란간조차 추위에 떨며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피뢰페에는 두 해고로동자의 불행한 모습, 바로 이것이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의 실상이다. 눈만 짜게지민 입술이 부르드도록 《북인민》을 썩여대는 피뢰페당이 저들의 반인민적행위 이 어떤 이 가슴아픈 현실을 무엇으로 감출수 있겠는가.

두명의 비정규직해고로동자들이 찬바람 몰아치는 광고판우에서 항의통성투쟁을 이어

우를 알수 많은 대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와 유사한 벽보들이 연속 등장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항간에서는 피뢰페당의 반인민적악정을 성토하여 지난해말 확대되었던 《안녕하십니까》 벽보시투쟁이 다시금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있다.

그러할수록 없다. 최근 서울의 어느 한 대학교앞 거리에서는 심한 좌절감에 빠진 청년학생들을 끌어당기는 피상한 캠페들이 늘어났고있다 한다. 졸업후 직업을 얻을 희망을 가할수 없는 대학생들이 그 허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있기때문이다.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를 청년시절이 오히려 험잡고 지겨운 시절로 된 인연불보의 땅 남조선에서 찾아볼수 있는 비극적현실이다.

동지달추위속에 모든것이 얼어붙은 지금 세대의 인연불보의 땅 남조선의 인연도 뚝뚝 얼어붙었다.

본사기자 리효진

이름없는 소원, 《내 집마련은 평생의 꿈》

성동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호주주택의 가격은 일반로동자가 10여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도 주택은 사람의 꿈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경우는 다르다. 부자감정책이 보여준다 싶이 가족들의 리익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남조선의 주택문제를 세계최악의 상황에 몰아가고있다.

전세제만 놓고봐도 그렇다. 전세제도는 인민적지동시 시기인 1910년대에 생겨난것으로 남 조선에서는 1960년대말에 널리 일반화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주인이 집값을 사람에게서 세방들을 빌려주면서 집값의 일정한 비율(5%정도)을 보증금형태로 받아내는것이 전세제이다. 현재 세계에 유수한 남조선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주택임대방식으로 제 집이 없는 사람들을 대다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입한 세방들에서 살고있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하늘높을 올리고있는것으로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부동산투

성동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호주주택의 가격은 일반로동자가 10여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도 주택은 사람의 꿈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경우는 다르다. 부자감정책이 보여준다 싶이 가족들의 리익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남조선의 주택문제를 세계최악의 상황에 몰아가고있다.

전세제만 놓고봐도 그렇다. 전세제도는 인민적지동시 시기인 1910년대에 생겨난것으로 남 조선에서는 1960년대말에 널리 일반화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주인이 집값을 사람에게서 세방들을 빌려주면서 집값의 일정한 비율(5%정도)을 보증금형태로 받아내는것이 전세제이다. 현재 세계에 유수한 남조선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주택임대방식으로 제 집이 없는 사람들을 대다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입한 세방들에서 살고있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하늘높을 올리고있는것으로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부동산투

성동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호주주택의 가격은 일반로동자가 10여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도 주택은 사람의 꿈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경우는 다르다. 부자감정책이 보여준다 싶이 가족들의 리익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남조선의 주택문제를 세계최악의 상황에 몰아가고있다.

전세제만 놓고봐도 그렇다. 전세제도는 인민적지동시 시기인 1910년대에 생겨난것으로 남 조선에서는 1960년대말에 널리 일반화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주인이 집값을 사람에게서 세방들을 빌려주면서 집값의 일정한 비율(5%정도)을 보증금형태로 받아내는것이 전세제이다. 현재 세계에 유수한 남조선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주택임대방식으로 제 집이 없는 사람들을 대다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입한 세방들에서 살고있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하늘높을 올리고있는것으로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부동산투

성동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호주주택의 가격은 일반로동자가 10여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도 주택은 사람의 꿈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경우는 다르다. 부자감정책이 보여준다 싶이 가족들의 리익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남조선의 주택문제를 세계최악의 상황에 몰아가고있다.

전세제만 놓고봐도 그렇다. 전세제도는 인민적지동시 시기인 1910년대에 생겨난것으로 남 조선에서는 1960년대말에 널리 일반화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주인이 집값을 사람에게서 세방들을 빌려주면서 집값의 일정한 비율(5%정도)을 보증금형태로 받아내는것이 전세제이다. 현재 세계에 유수한 남조선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주택임대방식으로 제 집이 없는 사람들을 대다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입한 세방들에서 살고있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하늘높을 올리고있는것으로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부동산투

성동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호주주택의 가격은 일반로동자가 10여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도 주택은 사람의 꿈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경우는 다르다. 부자감정책이 보여준다 싶이 가족들의 리익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남조선의 주택문제를 세계최악의 상황에 몰아가고있다.

전세제만 놓고봐도 그렇다. 전세제도는 인민적지동시 시기인 1910년대에 생겨난것으로 남 조선에서는 1960년대말에 널리 일반화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주인이 집값을 사람에게서 세방들을 빌려주면서 집값의 일정한 비율(5%정도)을 보증금형태로 받아내는것이 전세제이다. 현재 세계에 유수한 남조선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주택임대방식으로 제 집이 없는 사람들을 대다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입한 세방들에서 살고있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하늘높을 올리고있는것으로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부동산투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중지를 요구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북전선발전위원회》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에 항변하는 피뢰페당을 규탄하여 23일 경기도 김포시 에기봉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2일 피뢰페당은 에기봉주변을 통한 심리전을 반대하여 평화활동을 벌였다는 리유로 한 목사의 집과 사무실을 강제수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 선민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그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수색수동을 벌인데 대해 규탄하였다. 평화활동을 《북인민》활동이라고 하는 《정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단체가 평화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중북》몰이소동을 단정 중시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세계 제 패야 망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려는 인류의 지향이 남을 따라 높아지고 있는 오늘 그에 역행하는 세력의 존용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한때 《핵무기없는 세계》가 제창되던 미국에서 팽진 이후 중단했던 지하핵실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괴이한 주장이 로골적으로 울려나오고 있다. 다음해 1월부터 미국의 상원군사위원회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손베리는 미국신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국언론에 국가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무기를 시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떠벌였다. 그는 수명이 지난 낡은 기계를 계속 돌리던 것은 살얼음판위를 걷는 것과 같은 짓이다. 열쇠를 돌려보지 않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황당한 꾀변을 내뿜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존 헬리는 핵무기가 남아 신뢰도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새로운 핵탄두를 만들어 핵실험을 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팽진기가 핵무기개발에 관여했던 미국의 일부 과학자들도 핵무기가 녹슬어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세대 핵무기에 쓸 수 있는 각종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갈고있다는 미국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를 하였다.

이것이 얼마전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오바마의 민주당이 패하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 다수를 차지한 것을 계기로 나온 소리라는 것을 누구든 들 때 헤쳐보실 수 없다. 미국이 다음 세대 핵무기를 운운하면서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려고 핵실험의 필요성을 떠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핵무기교체는 세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고도 남을 핵무기들이 가득 쌓여 있다. 그것들은 지금까지 1032회의 핵실험을 거쳐 제작된 것들이다라고 한다. 한가지 자료만 보더라도 미국의 《트라이던트》급 핵잠수함은 보통 수십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매 개 핵탄두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과는 대비도 안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핵잠수함을 14척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괌 등 지상에 기지를 둔 미사일들과 전략핵무기탄두를 넘두에 두지 않아도 미국이 단 한척의 핵잠수함만으로 인류에게 어떤 핵참화를 들의울 수 있는가를 상상하게 한다.

미국과학자들이 자국에 있는 핵무기중 100개만으로도 세계에 《겨울》이라는 참사를 얼마든지 빚어낼 수 있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은 그로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핵무기교체 국제사회의 전율의 대상으로 되고있다는 것은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제법 큰소리를 치던 미국이 핵실험의 필요성을 들고오는 것은 무엇보다 문명이다.

기에는 절대적인 핵무기에 기초한 세계평화를 기어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음흉한 목적이 갈려있다. 팽진기 끝난 이후 미국은 로씨야와의 핵무기감축합의에 따라 핵탄두를 핵무기 줄이고 지하핵실험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핵무기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보복타격을 면할 수 없다. 핵전쟁이 터지면 저들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핵방산자들이 모를 리 없다. 미국집권자들은 《핵무기없는 세계》 건설구상이 무효 하지만 그것은 변함없이 핵전쟁을 추구하는 저들의 진짜속심을 가라기 위한 서론짜리 변장술에 지나지 않았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방대한 핵무기들을 제거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미군부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핵무기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없는 낡은것들이라면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이를 파괴해버리는 것이 순리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바라는 인류의 지향도에 부합되고 세계적인 핵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책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비핵세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고언하던 이들이 핵실험의 필요성을 운운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저들은 핵무기를 마음대로 가지고 핵실험을 해도 되지만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가지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도발로 된다는 것이 미국의 강도적 논리이다. 미국은 이런 남강도적인 논리를 가지고 평화적인 핵에너지개발을 추구하는 나라들까지 눈을 의심시켜주고 큰 변이 난장처럼 소동을 피우고 있다.

미국은 가소롭게도 우리 나라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열심히 부르고 있다. 태평양에서 미군 총사령관으로 지명된 해리스는 미상

대사관 회의 청문회에 나타나 《북조선의 대규모핵실험진행,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의 집요한 개발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며 조선반도문제는 《가장 위협성 높은 도전요인이자 가장 큰 우려》라고 떠벌였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위협공갈하는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잘살 수 있게 도와 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무성 차관보 라벨은 최근 워싱턴에서 한 강연에서 《핵개발을 추진하는 한 번영을 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면서 경제건설과 핵개발을 이라고 추진하는 우리의 병진로선을 감히 열렬했다. 우리는 그의 말방이 우리의 핵보급이 초정밀화되고 우리 나라에서 경제건설의 동음이 새겨져 울려 인민들속에서 로동당면세소리가 높여 일어나는 경이적인 현상이 펼쳐지는데 절정현상들의 한가 거야말로 비명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책들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오늘 미국이 있다고 없는 우리의 《인민문제》를 유엔에 끌고가는 망동까지 부리고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의 합법적명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말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핵무기상태와 제도전복을 이루어 보자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국제적인 위협》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떠벌이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을 것이다.

우리를 핵보유국의 길로 떠벌이는

리 현 도

선참으로 없애버려야 할 우환거리

우리 선조들은 외세의 삼갈개가 되어 침략의 칼잡이노릇을 하는 미국노를, 동족을 모해하는 데서 폐감을 찾으며 구린 입을 분주히 놀리는 간신 무리들을 절도 중요하여왔다. 미제의 식민주의를 이었던 제국 피폐독재자들이 바로 그런 타락된 역적들이다. 그런데 현 피폐독재자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저지르는 반역적행위에 있어서는 생생한 활선 통가한다.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여론화해보려고 피는 되어 날뛰는 피폐독재자들의 당연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 69차회의 3위원회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결의》라는 것을 조작하는데 앞장서 날뛰던 피폐독재자들은 얼마전 유엔총회 본회의와 유엔안전보장위원회에서 또다시 동족을 모해하며 도발소동에 광분하였다. 이어 저들의 간첩기구 결정적으로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유엔총회에서 꾸며지고 유엔안전보장위원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자 《환영》이니, 《국제사회의 압박》이니 하고 승기가 나서고 있다. 한편 우리부터는 《인권결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떠벌지 않는 싹새질까지 하였다.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미국에서의 인종차별과 약탈은 미중양정부의 고문민행을 비롯한 상진의 반인권적범죄에 대해서는 썩소리로 못하는 주자들이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유엔에 끌고자 소란을 피운 그 꼴이 야말로 역적기 그지없다. 애당초 인권을 운운할 체면도 저격도 없는 식민주의피폐들의 그 추태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회세의 파도적정점을 일삼으며 남조선에 세계최악의 독재사회, 인권의 황망한 불모지로 전락시킨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현 피폐독재세력이다.

청와대안방주인이 뿔어내는 차디찬 까짚의 핑계에 의해 민주주의가 사라진지 오래고 인권의 깎이 모조리 열어죽고있는 것이 남조선의 스산한 현실이다. 최근 남조선 각계의 비난을 불태우고 있는 통참보장위원회 산소동은 피폐독재의 독재통치가 얼마나 엄청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피폐독재야말로 인류문명의 심판대에 제일 먼저 세워야 할 특등범죄자들이다. 이런 국가무도한 독재자들이 당치않게 그 누구의 《인권》이

민족적 화해를 도모할 것을 호소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21일 한 외교정상에서 민족적 화해를 도모할 것을 전국에 호소하였다.

그는 정부가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테러와의 투쟁을 강화할 자기 나라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 언급

이란과대통령 바샤르가 20일 18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의 경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부문에 많은 성과가 기록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현대적인 영농방법과 판개시설을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더욱 증가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가 자력갱생하는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해 헌신분투할 것을 호소하였다.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벨리자와 파메라가 20일 문화, 환경보호, 전력, 관광 등 분야에서 협조할에 관한 13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최근 호르바즈카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적인 협조관계를 강화할 것을 서약하였다.

운하건설 착공

니카라과에서 22일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건설이 시작되었다.

건설착공식이 리바시에서 진행되었다.

길이 278km에 달하는 운하건설은 2019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한다.

시우발빌수집단 적발

남아프리카에서 최근 시우발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년차총회가 16일 아부자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는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와 산하 연구조직책임자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위원회의 올해 활동정형이 총회되었으므로 2015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베닌 전국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베닌에서는 위원회의 올해 활동정형이 총회되고 2015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을 맞는 다음해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세계적으로 심각한 토양퇴화현상

세계적으로 토양퇴화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이 밝힌 데 의하면 현재 세계 토양의 33%가 황폐화되어 있다. 원인은 토양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는 데가 토양의 부식작

빗더미에 시달리는 미국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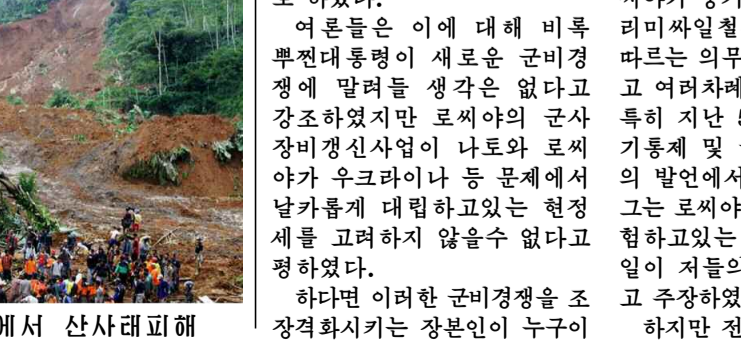
미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막대한 빚을 지고 커다란 불안과 걱정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의하면 현재 빚에 시달리고 있는 5명중 1명의 미국인이 죽을 때까지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을 표시하였다 한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마르코의 사파리와 카사블랑카에서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15일 현재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었다. 지난 11월에만도 나라의 남부지

인도네시아에서 산사태피해

에 잠겼으며 자동차와 철차운행이 중지되었다. 큰물로 인한 피난민수는 29만명에 달하였다 한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필리핀에서 래풍피해

인도네시아에서 산사태피해

나토의 무력증강책동을 비난

로씨야공군총사령관 워드로 본다레프가 16일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무력증강책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일부 대북보도수단들이 로씨야항공공군기 비행과정에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떠벌어 대고있다는 것만 편하여 그는 이 들의 기술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인 훈련을 국제법에 엄격히 준수하여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파키스탄에 대한 미군의 무인기공습만행

미군이 《반테러》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에 대한 무인기공습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20일 미군부대가 북부지역 리스란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살림집건물을 목표로 2기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결과 6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당하였다. 미군의 계속되는 공습만행은 파키스탄인들속에서 반미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